



# 민방의학에 나타난 ‘간에 좋은 약초’ - 어성초와 민들레

스마트리빙(주)은 (주)씨케이바이오가 19세기말 궁중어의가 처방한 비방을 중심으로 영남권 일원에서 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제공되어 그 효능이 입증된 제품을, 현대 화학적인 분석 방식으로 재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권 진입의 일차적인 단계로 건강보조식품 및 기타가공식품의 형태로 출시된 제품(비바로티, 비바초이스)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어성초, 민들레 등의 천연물질을 선별하여 비방의 배합비율을 이용해 특수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 비바로티이다. 전래 민방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기 재료들의 특성인 ‘항암력’, ‘청혈’, ‘독소제거’의 기능을 함축한 본 제품은 청혈 및 항바이러스 기전을 통하여 간 기능이 개선되고, 피가 맑아지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숙취가 해소되며, 피로가 없어지고, 숙변이 해결되고, 독감이 예방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성초 등의 재료로 다수의 간질환 환자를 고친 사례들이 전해지지만 현재의 어성초 분말이나 액기스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의학·민방의학이 갖는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려 배합, 가공함으로써 각각의 재료들은 이전의 성질과는 상이한 매우 높은 약성을 지니게 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처방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비바로티는 재료 각각의 효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 어성초

### 어성초란?

어성초는 삼백초(三白草)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15~50cm쯤 자라며 줄기의 하부는 땅 위를 기어가듯이 옆으로 뻗는다. 잎은 마주나고 심장모양의 타원형이며 길이 3~8cm, 폭 4~6cm로 끝이 뾰족하다. 꽃은 작고 꽃잎은 없으며 흰색이다. 초여름철에 줄기 끝에서 네 개의 흰 꽃받이가 있는 노란 꽃이 하나씩 핀다. 잎과 줄기에서 고기 비린내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성초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로는 약모밀이라고 한다.



어성초의 약리성분은 Decanoil acetaldehyde(강력한 항균작용 - 설파민 항생제의 40,000배), Myrcene(간의 monooxygenase를 induction - 간의 대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유리 산소기를 제거해주는 효소의 생성을 촉진), Flavonoids(이뇨작용, 강심작용, 모세혈관 강화작용), Vitamin B(탄수화물 대사를 비롯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여 거의 모든 척추동물의 필수 영양소), Vitamin B2(지방에서 에너지 생성, 간에서 음식 부패물 해독, 세포 재생 촉진, 건강한 피부) 등이다.

어성초는 체내독소제거에 탁월한 작용을 하고, 설파민의 40,000배가 넘는 항염 작용을 한다. 각종 염증성 질환치료 ‘데카노일 아세트알데히드’를 함유(비린내 성분)하고 있고 은행잎을 능가하는 ‘플로부노이드’가 혈액정화 작용을 한다. 혈압을 조절해주는 ‘칼륨염’의 보고로써 ‘지아민’은 인삼의 25배, ‘리보플라빈’은 3배, ‘나이아신’은 1.4배에 달한다.

### <한방식물도감이 말하는 어성초>

어성초는 몸속의 온갖 독을 없게 하는 해독초(解毒草)다. 어성초가 얼마나 독을 잘 제거하는가는 일

본에서 '도꾸다미'(글자로 풀면 '毒橋')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독을 교정한다는 뜻이다. 학자에 의하면 얻은 외래독, 몸속에서 생긴 자가 중독, 세균 독까지 없게 해준다는 기이한 해독 전문 식품이다. 고대로 만병 일독이라 했는데, 이는 모든 병의 원인은 독이라는 한 가지 요소로 생긴다는 뜻이다. 이 독을 여성초가 제거한다니 여성초야말로 건강 증진을 위한 귀중한 하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여성초는 미용초(美容草)다.** 여성초 속의 풍부한 '쿠에르치트린'이라는 특수 성분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맑게 해주면 살결 속의 독도 없애주므로 여성초를 먹으면 살결이 희어지고 피부 '트리플'이 사라진다.

**여성초는 정장초(整腸草)다.** 여성초는 식품으로 먹고 있으면 대장벽의 모세혈관이 부활되어 장속을 깨끗이 해준다.

**여성초는 청혈초(淸血草)다.** 많은 여성초 관계 문헌에 한결같이 여성초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한다.

**여성초는 청뇨초(淸尿草)다.** 여성초를 먹고 있으면 그 속의 풍부한 '칼륨'과 '이소쿠에르치트린' 및 '쿠에르치트린'의 상승작용으로 무리 없이 수분 대사가 잘 된다. 오줌이 시원히 힘차게 나오면 소변 색깔도 맑아진다.

**여성초는 소염초(消炎草)다.** 여성초는 먹어도 발라도 염증을 가시게 하는 효능 식품이다.

**여성초는 재생초(再生草)다.** 원폭을 맞은 히로시마시에 제일 먼저 소생한 풀이 여성초인데 이런 생명력 탓인지 원폭으로 상한 사람들이 이 여성초를 이용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민들레는 간기능 개선 및 체내 제독 작용을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염, 위궤양을 치료한다. 소변불통에 좋고 호흡기질환 일체, 해열제, 건위제로 쓰인다. 여성의 유방에 종기 멩울이 생겨 염증이 된 것과 종기가 나서 쑤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며,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크다.

#### <증상별 민들레 복용법>

- 만성간염 지방간 등의 간질환 : 민들레를 뿌리까지 캐서 그늘에서 말린 것 30~40그램에 물 1되(1.8리터)를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3~4번에 나누어 마신다. 황달이나 간경화증 환자가 치유된 예가 많다.
-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병 : 민들레 생잎을 깨끗하게 씻어서 씹어 먹는다. 쓴맛이 나지만 습관이 되면 그런대로 먹을 만하다. 뿌리째 캐서 그늘에 말렸다가 진하게 달여서 먹어도 좋다.
- 유선염 유방암 : 생즙은 마시고 생즙 찌꺼기는 환부에 두껍게 붙인다. 하루에 한번씩 갈아 생즙을 1일 1회 먹는다.

- 자료제공 : 스마트리빙(주)

상담 : 02-6677-7999

(관련기사 표지 4면)

## 민들레

### 민들레란?

민들레는 예부터 동서양 어디에서나 먹을거리나 민간약으로 널리 다양하게 써왔다. 민들레는 세계 도처에 2~4백 종류가 있으나 국내에서 자라는 흰 민들레가 가장 약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민들레보다는 토종민들레, 노래가사에도 나오는 흰 꽃이 피는 '하얀 민들레'가 제일 약효가 좋다.

**민들레의 약리성분은 Choline(기억력 향상과 간기능 강화기능), Inulin(inulin 분해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킨다), Rutin(자체로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지만,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사되어 Quercetin으로 변한다. 그런데 Quercetin은 항암물질이기도 하다) 등이다.**

